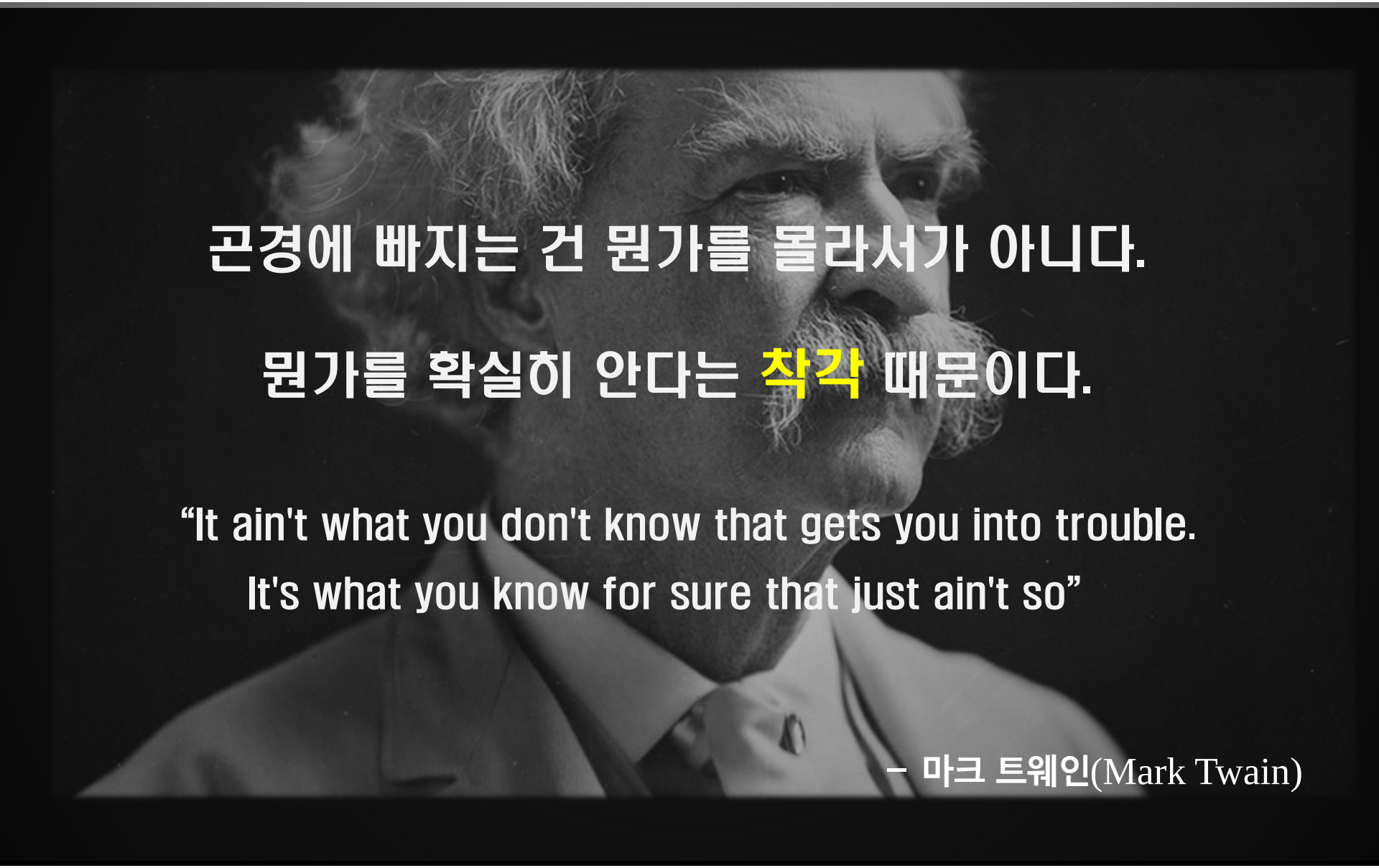
청년의 근로 현황과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방안

2023. 8. 10(木)

중소벤처기업연구원
노민선 연구위원

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
Korea SMEs & Startups Institute


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.
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.
“It ain't what you don't know that gets you into trouble.
It's what you know for sure that just ain't so”
– 마크 트웨인(Mark Twain)

목 차

Ⅰ. 중소기업과 청년 취 · 창업자

Ⅱ. 청년의 직업 선택과 일자리 이동

Ⅲ. 청년의 근로 환경

Ⅳ.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방안

Ⅰ. 중소기업과 청년 취·창업자

1. 중소기업 현황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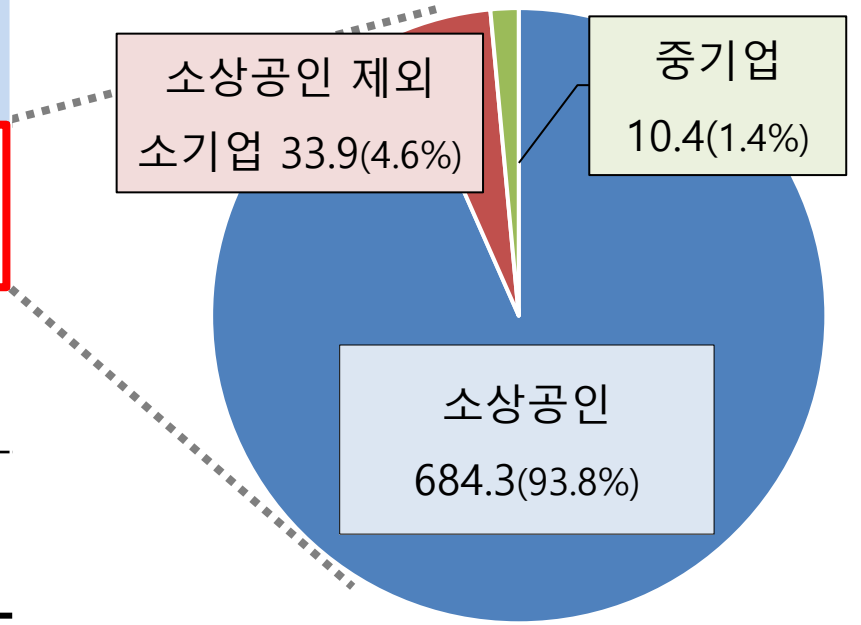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 수는 '20년 기준 728.6만개로 전체 기업의 99.9%를 차지

○ 소상공인 기업 수는 684.3만개(93.8%), 소상공인 제외 소기업은 33.9만개(4.6%)

〈기업유형별 기업 수(2020)〉

(단위 : 만개(비중))

구 분	기업 수
중소기업	**728.6 (99.9%)**
대기업	0.9 (0.1%)
전 체	729.5 (100.0%)



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,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, 2022. 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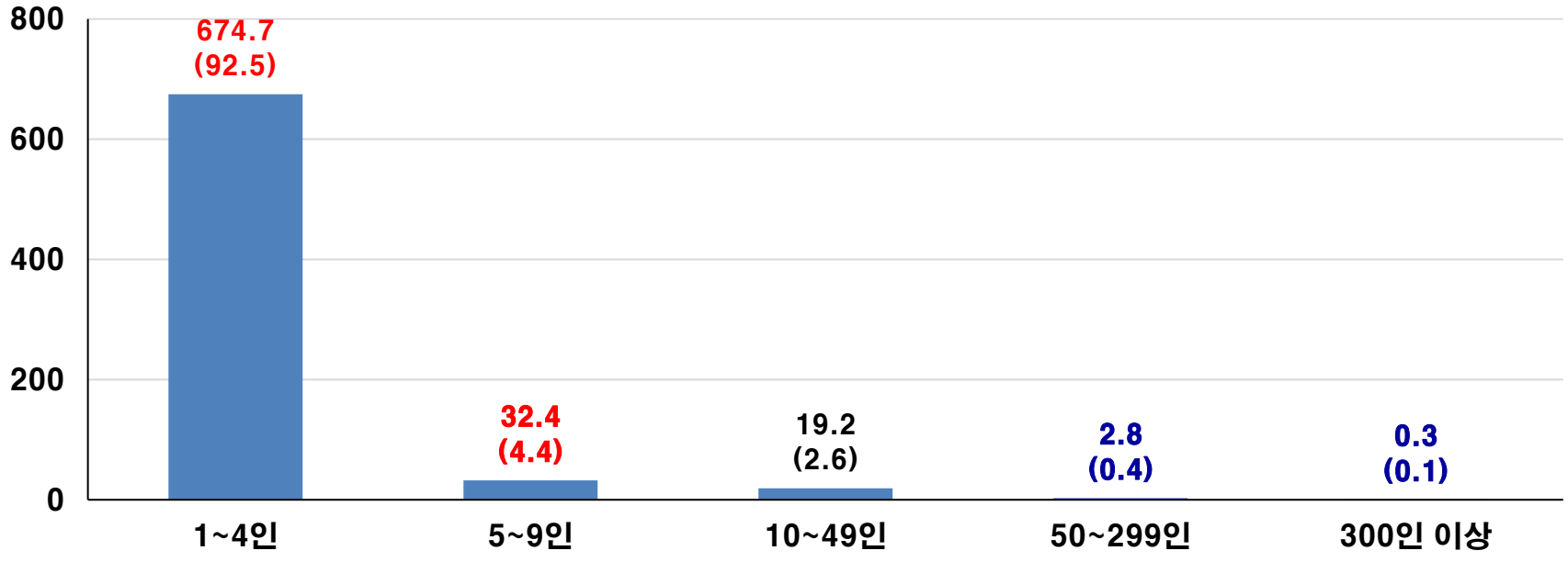
1. 중소기업 현황(2)

□ 10인 미만 기업 수는 '20년 기준 707.1만개로 전체 기업의 96.9%를 차지

○ 50인 이상 기업 수는 3.1만개로 전체 기업의 0.5%에 불과

<종사자규모별 기업 수(2020)>

(단위 : 만개(비중))



주 : 수치는 반올림함
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,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, 2022. 7.

1. 중소기업 현황(3)

□ 중소제조업의 50.6%가 수급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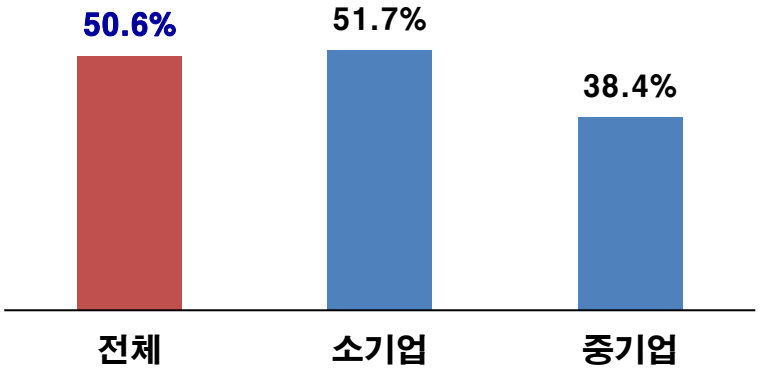
○ 소기업 : 51.7%, 중기업 : 38.4%

□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235조원

○ 중소제조업 수급기업 매출총액(311조원)의 75.7%를 차지[위탁기업 의존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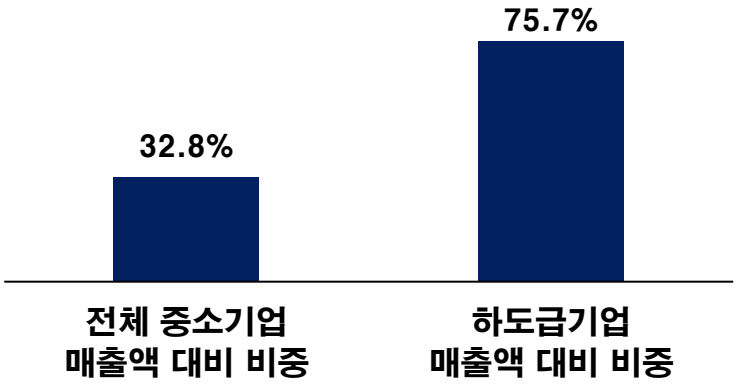
○ 중소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32.8%에 해당

<중소제조업의 하도급 기업 비중>



<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>

(납품액/매출액)

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·중소기업중앙회,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, 20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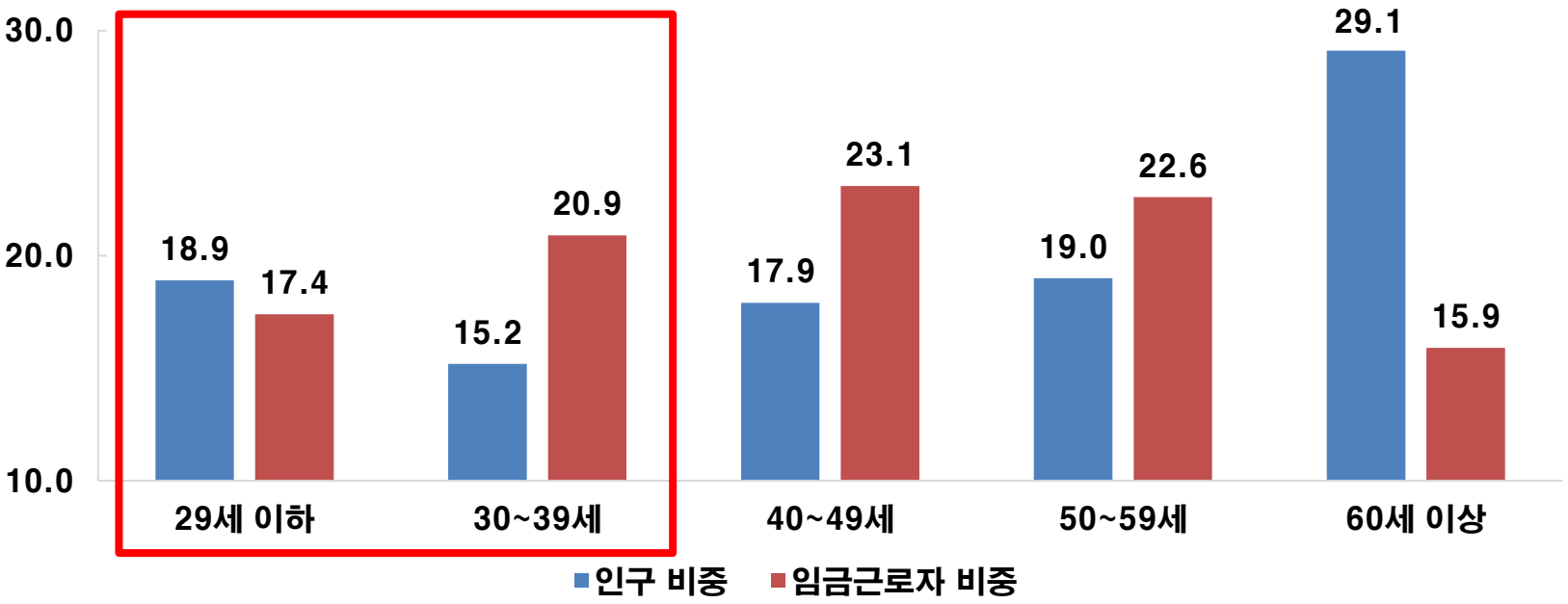
2. 청년 근로자 비중(1)

□ 인구 비중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 차이

○ 29세 이하 : △1.5%p(17.4-18.9) / 30~39세 : 5.7%p(20.9-15.2)

<인구 및 임금근로자 비중(2022)>

(단위: %)



주 : 수치는 반올림함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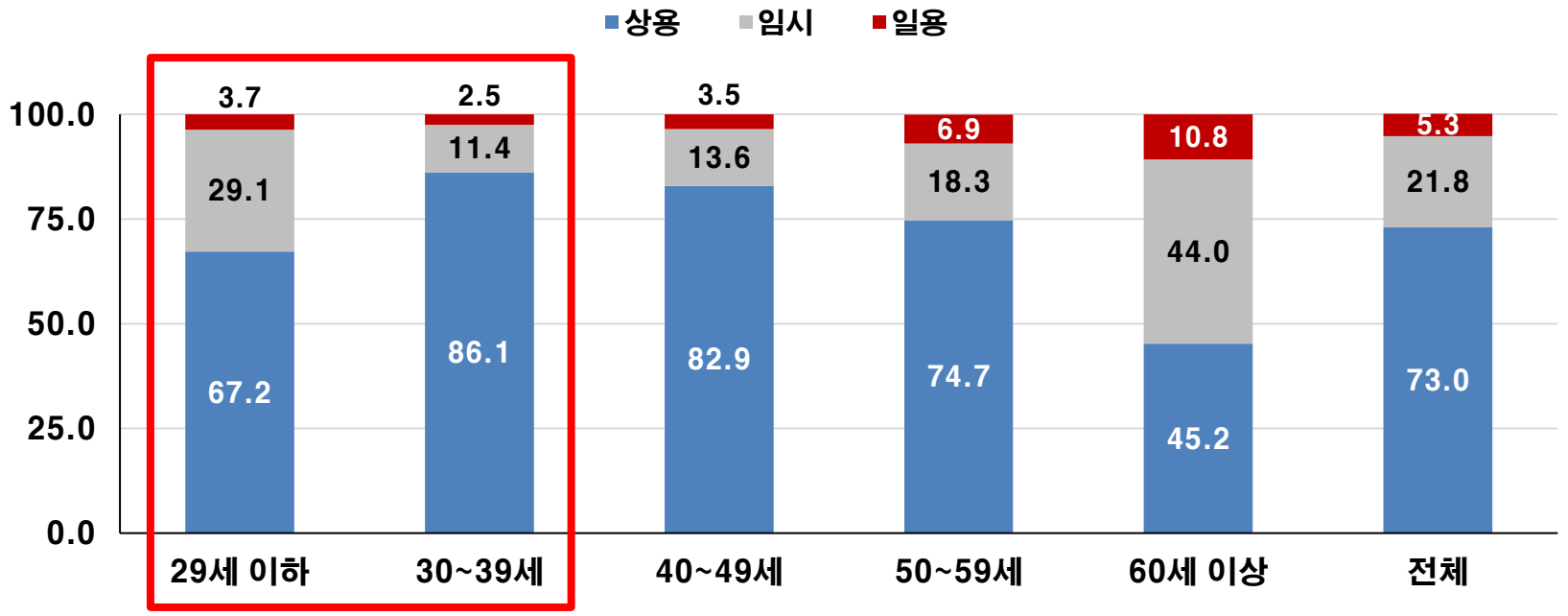
2. 청년 근로자 비중(2)

□ 상용 근로자 비중

○ 30대(86.1%), 40대(82.9%), 50대(74.7%), 29세 이하(67.2%) 등의 순

<임금근로자 종사자지위별 비중(2022)>

(단위: %)



주 : 수치는 반올림함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

3. 청년 창업 비중(1)

□ 창업 비중 증가율('19~'22)

○ 29세 이하 : 1.7%p ↑ (11.4→13.1) / 30~39세 : 1.6%p ↑ (22.8→24.4)

<전체 창업 현황>

(단위: 만개(%))

구 분	2019	2022	증감
29세 이하	14.7 (11.4)	**17.3 (13.1)**	**2.6 (1.7p)**
30~39세	29.4 (22.8)	**32.1 (24.4)**	**2.7 (1.6p)**
40~49세	35.6 (27.7)	35.5 (26.9)	△0.1 (△0.8p)
50~59세	31.4 (24.4)	28.9 (22.0)	△2.5 (△2.4p)
60세 이상	17.4 (13.6)	17.7 (13.4)	0.3 (△0.2p)
기타	0.1 (0.1)	0.2 (0.2)	0.1 (0.1p)
전체	128.5 (100)	131.7 (100)	3.2 (-)

주 : 수치는 반올림함

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기업동향 재가공

3. 청년 창업 비중(2)

□ 기술창업 비중 증가율('19~'22)

○ 29세 이하 : 0.5%p ↑ (11.3→11.8) / 30~39세 : 1.6%p ↓ (28.0→26.4)

<기술기반업종 창업 현황>

(단위: 만개(%))

구 분	2019	2022	증감
29세 이하	2.5 (11.3)	**2.7 (11.8)**	**0.2 (0.5p)**
30~39세	6.2 (28.0)	**6.1 (26.4)**	**△0.1 (△1.6p)**
40~49세	7.0 (31.6)	7.2 (31.2)	0.2 (△0.4p)
50~59세	4.6 (20.8)	4.8 (21.0)	0.2 (0.2p)
60세 이상	1.8 (8.2)	2.2 (9.4)	0.3 (1.2p)
기타	0.03 (0.1)	0.03 (0.1)	-
전체	22.1 (100)	22.9 (100)	0.8 (-)

주 : 수치는 반올림함
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기업동향 재가공

Ⅱ. 청년의 직업 선택과 일자리 이동

1. 청년의 중소벤처기업 선호도

□ 최근 10년간('11~'21) 중소기업과 자영업(창업 등) 선호도는 증가

○ 최근 10년간('11~'21) 벤처기업 선호도는 감소

<청년이 선호하는 직장(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)>

(단위: %)

구 분	중소기업			벤처기업			자영업(창업 등)		
	2011	2021	증감	2011	2021	증감	2011	2021	증감
19세 미만	2.7	3.7	1.0p	3.7	2.8	△1.1p	7.6	9.0	1.4p
19~24세	2.5	**4.8**	2.3p	2.6	**2.4**	△0.2p	10.7	**11.8**	1.1p
25~29세	1.6	**4.4**	2.8p	2.7	**2.5**	△0.2p	11.7	**16.1**	4.4p
30~34세	-	4.7	-	-	1.8	-	-	16.2	-
전체	2.3	4.4	2.1p	3.0	2.4	△0.6p	9.8	13.5	3.7p

자료 : 통계청, 사회조사 결과 재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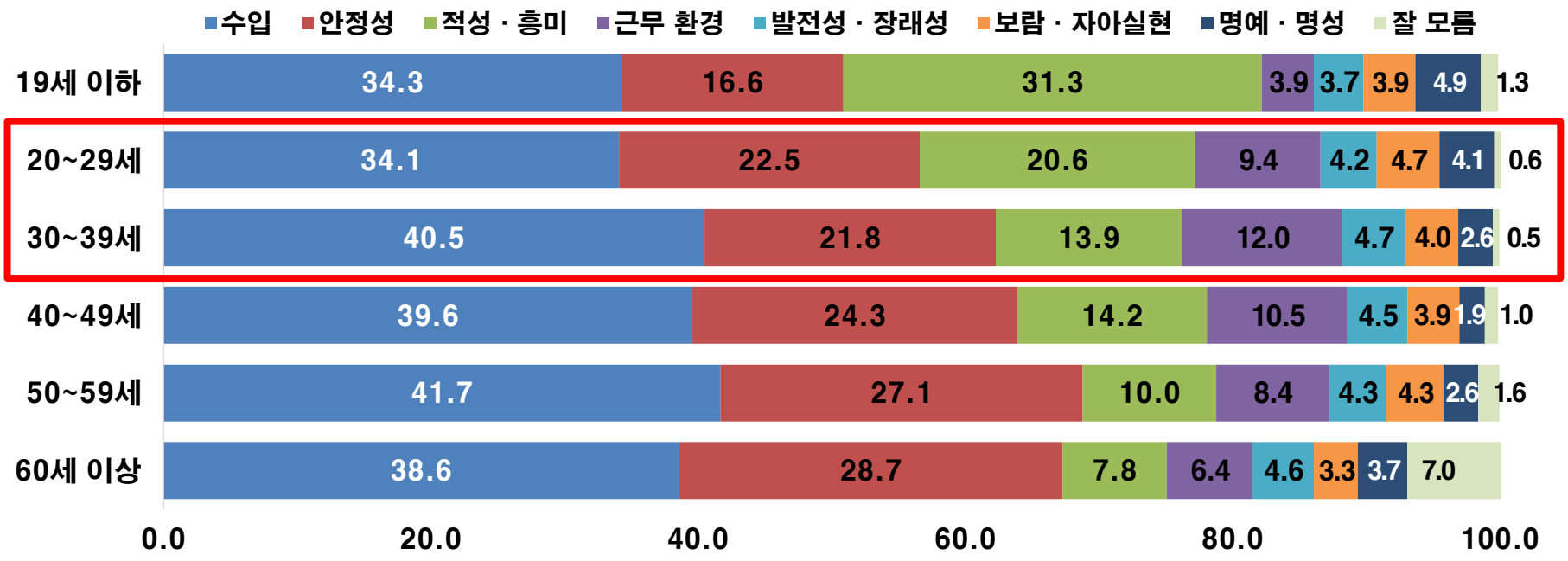
2. 청년의 직업 선택요인

□ 모든 연령에서 직업 선택 시 **수입**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

○ 20~29세는 **적성 · 흥미**, 30~39세는 **근무환경**의 비중이 높은 수준

〈직업 선택요인〉

(단위: %)



자료 : 통계청, 2021년 사회조사 결과, 2022 재가공

3. 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(최종학교 졸업(중퇴) 후 첫 일자리)

□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개월(남성 12개월, 여성 9개월)

○ 6개월 미만 소요 비중 : (전체) 60.7% / (남성) 56.4% / (여성) 64.5%

<첫 취업 소요기간(15~29세)>

(단위: %)

구 분	전체			남자			여자		
	2019	2023	증감	2019	2023	증감	2019	2023	증감
3개월 미만	49.5	48.9	△0.6p	48.1	45.9	△2.2p	50.8	51.5	0.7p
3~6개월 미만	12.8	11.8	△1.0p	11.4	10.5	△0.9p	14.1	13.0	△1.1p
6개월~1년 미만	10.0	10.9	0.9p	10.9	11.6	0.7p	9.1	10.3	1.2p
1~2년 미만	11.7	13.1	1.4p	10.3	12.9	2.6p	12.9	13.3	0.4p
2~3년 미만	6.5	6.9	0.4p	7.9	7.9	-	5.4	6.1	0.7p
3년 이상	9.5	8.4	△1.1p	11.4	11.3	△0.1p	7.8	5.8	△2.0p
전체	100	100	-	100	100	-	100	100	-
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(개월)	11	10	△1	12	12	-	10	9	△1

주 : 임금근로자 기준(5월)이며, 수치는 반올림함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재가공

4. 청년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

□ 코로나19 이전 대비 200~300만원 임금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

○ [전체] 13.2%p↑ / [남성] 13.1%p↑ / [여성] 13.3%p↑

<첫 일자리 취업 당시 평균임금(29세 이하)>

(단위: %)

구 분	전체			남자			여자		
	2019	2023	증감	2019	2023	증감	2019	2023	증감
50만원 미만	5.1	3.3	△1.8p	5.4	3.1	△2.3p	4.9	3.6	△1.3p
50~100만원 미만	12.5	9.6	△2.9p	12.1	9.5	△2.6p	12.9	9.8	△3.1p
100~150만원 미만	27.7	15.7	△12.0p	24.6	14.6	△10.0p	30.6	16.7	△13.9p
150~200만원 미만	**34.1**	**35.7**	1.6p	32.1	31.9	△0.2p	**35.9**	**39.0**	3.1p
200~300만원 미만	**18.1**	**31.3**	13.2p	**22.3**	**35.4**	13.1p	**14.4**	**27.7**	13.3p
300만원 이상	**2.4**	**4.3**	1.9p	**3.6**	**5.6**	2.0p	**1.3**	**3.3**	2.0p
전체	100	100	-	100	100	-	100	100	-

주 : 월평균(5월)이며, 수치는 반올림함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재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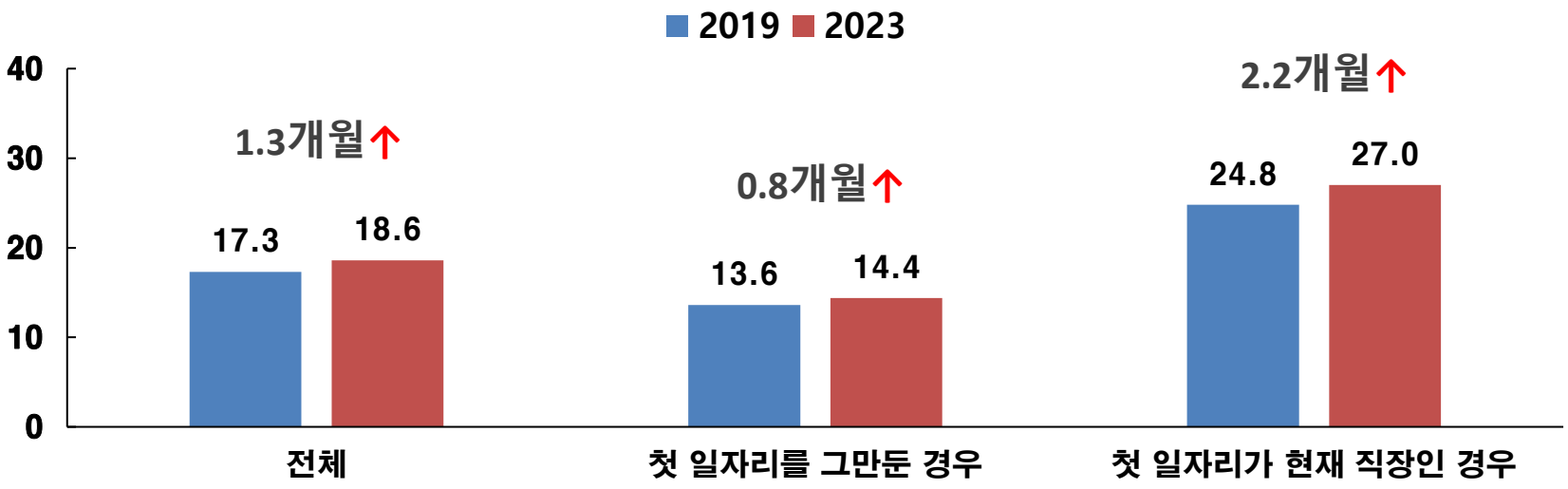
5. 청년의 첫 직장 근속기간

□ 첫 직장 근속기간은 18.6개월이며, 코로나19 이전 대비 1.3개월 증가

○ 첫 일자리를 그만 둔 경우 : 14.4개월 / 첫 일자리가 현재 직장인 경우 : 27.0개월

<첫 직장 근속기간(29세 이하)>

(단위: 개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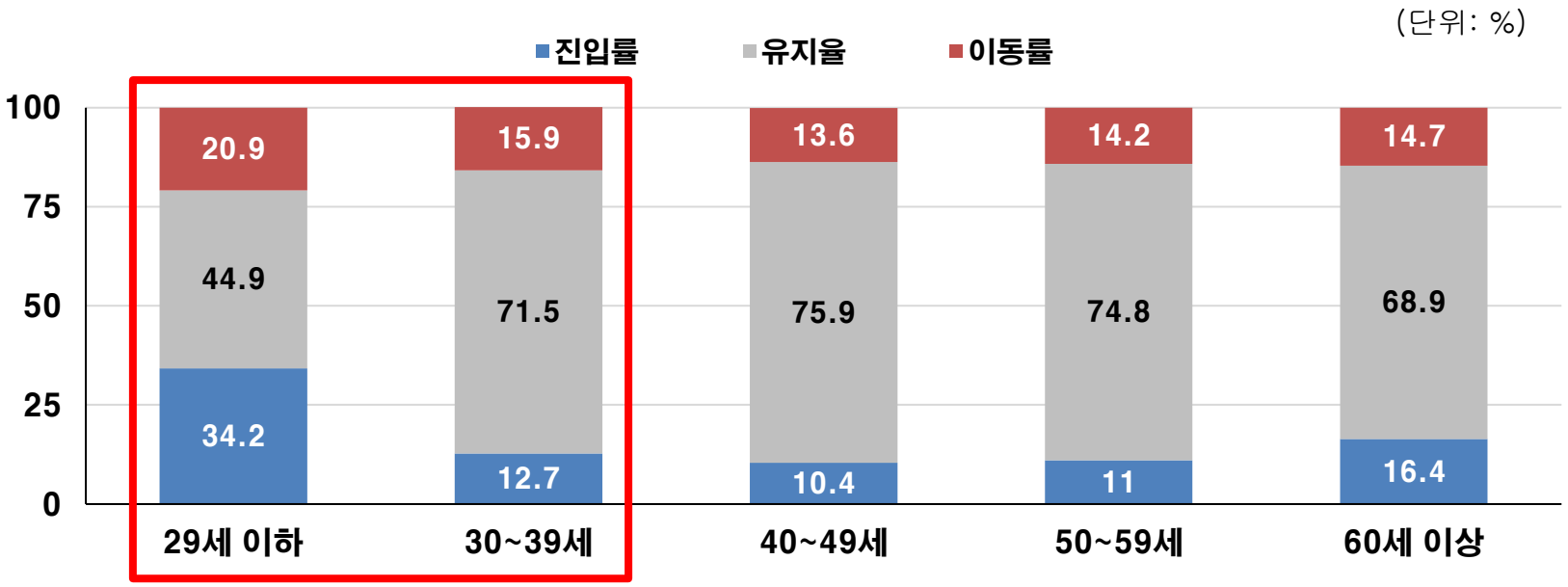
주 : 임금근로자 기준(5월)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재가공

6. 일자리 이동 현황(1)

□ 29세 이하의 일자리 진입률(34.2%)과 이동율(20.9%)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은 수준

○ 일자리 유지율 : 40대(75.9%), 50대(74.8%), 30대(71.5%), 60세 이상(68.9%), 29세 이하(44.9%)

<연령별 일자리 이동률('20 → '21)>



주 : (진입률) 미등록 상태였다가 일자리에 등록된 비율 / (유지율) 일자리가 동일 기업체 내에서 유지된 비율
(이동율) 이직 등의 사유로 일자리가 달라진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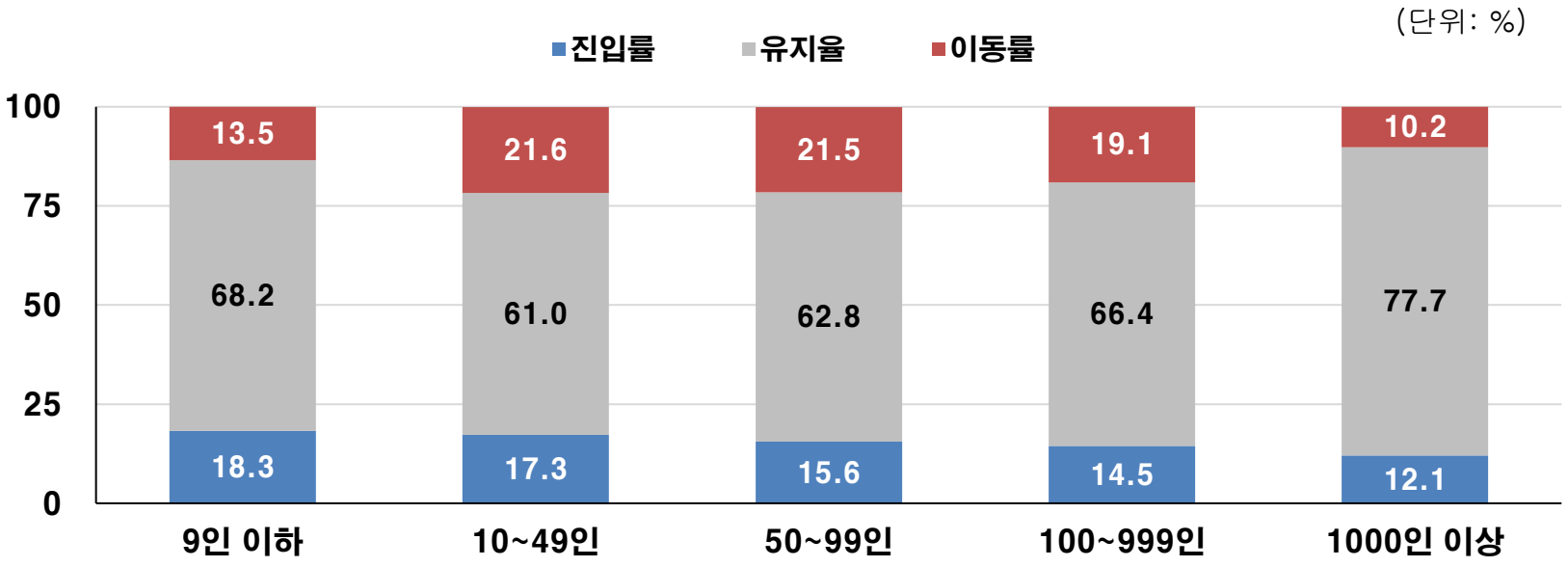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, 2023 재가공

6. 일자리 이동 현황(2)

□ 일자리 이동률은 10~49인(21.6%)과 50~99인(21.5%) 기업에서 높게 나타남

○ 일자리 유지율은 1,000인 이상(77.7%), 9인 이하(68.2%), 100~999인(66.4%) 등의 순

<종사자규모별 일자리 이동률('20 → '21)>



주 : (진입률) 미등록 상태였다가 일자리에 등록된 비율 / (유지율) 일자리가 동일 기업체 내에서 유지된 비율
(이동율) 이직 등의 사유로 일자리가 달라진 비율

자료 : 통계청,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, 2023 재가공

Ⅲ. 청년의 근로 환경

1. 청년의 워라밸 우선도

□ 일을 우선 시 하는 청년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

○ (19~29세) 14.5%p ↓ / (30~39세) 10.6%p ↓

<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>

(단위: %)

구분	일을 우선 시			일과 가정생활 비슷			가정생활을 우선 시		
	2019	2021	증감	2019	2021	증감	2019	2021	증감
19~29세	50.3	**35.8**	△14.5p	35.4	**44.7**	9.3p	14.3	**19.5**	5.2p
30~39세	39.4	**28.8**	△10.6p	42.9	**46.9**	4.0p	17.8	**24.3**	6.5p
40~49세	39.4	32.6	△6.8p	47.4	48.6	1.2p	13.2	18.8	5.6p
50~59세	44.0	36.5	△7.5p	45.4	49.6	4.2p	10.5	13.9	3.4p
60세 이상	39.6	34.0	△5.6p	47.1	49.7	2.6p	13.3	16.3	3.0p
전체	42.1	33.5	△8.6p	44.2	48.2	4.0p	13.7	18.3	4.6p

주 :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기준이며, 수치는 반올림함
자료 : 통계청, 사회조사 결과 재가공

2. 청년의 근로시간

□ 주52시간제 도입 이후('18~'22) 평균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

○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 : (29세 이하) 4.7% / (30~39세) 5.9%

<평균 근로시간>

(단위: %)

구분	40시간 이하			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			52시간 초과		
	2018	2022	증감	2018	2022	증감	2018	2022	증감
29세 이하	60.0	**74.9**	14.9p	31.1	**20.4**	△10.7p	8.9	**4.7**	△4.2p
30~39세	53.9	**69.4**	15.5p	34.4	**24.8**	△9.6p	11.7	**5.9**	△5.8p
40~49세	54.4	69.2	14.8p	33.6	25.0	△8.6p	12.0	5.8	△6.2p
50~59세	56.0	69.1	13.1p	30.8	24.0	△6.8p	13.2	6.9	△6.3p
60세 이상	63.9	76.3	12.4p	21.5	16.2	△5.3p	14.6	7.5	△7.1p
전체	56.8	71.3	14.5p	31.3	22.5	△8.8p	11.9	6.2	△5.7p

주 : 임금근로자 기준이며, 주업과 부업을 합한 수치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

3. 청년의 유연근무제 활용도

□ 30~39세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높은 수준

○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무시간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<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비중(2022)>

(단위: %)

구 분	합계	근로시간 단축근무제	시차 출퇴근제	선택적 근무시간제	재택 및 원격근무제	탄력적 근무제	기타
29세 이하	**14.6**	1.3	**4.9**	3.1	1.9	2.8	0.7
30~39세	**23.8**	**3.0**	**6.1**	**5.0**	**4.1**	**4.5**	1.2
40~49세	19.0	2.0	5.1	3.8	3.5	3.4	1.2
50~59세	14.2	1.3	4.4	2.9	2.0	2.4	1.1
60세 이상	5.9	0.4	1.4	1.1	0.7	1.2	1.0
전체	16.0	1.7	4.5	3.3	2.5	2.9	1.0

주 : 임금근로자 기준이며, 수치는 반올림함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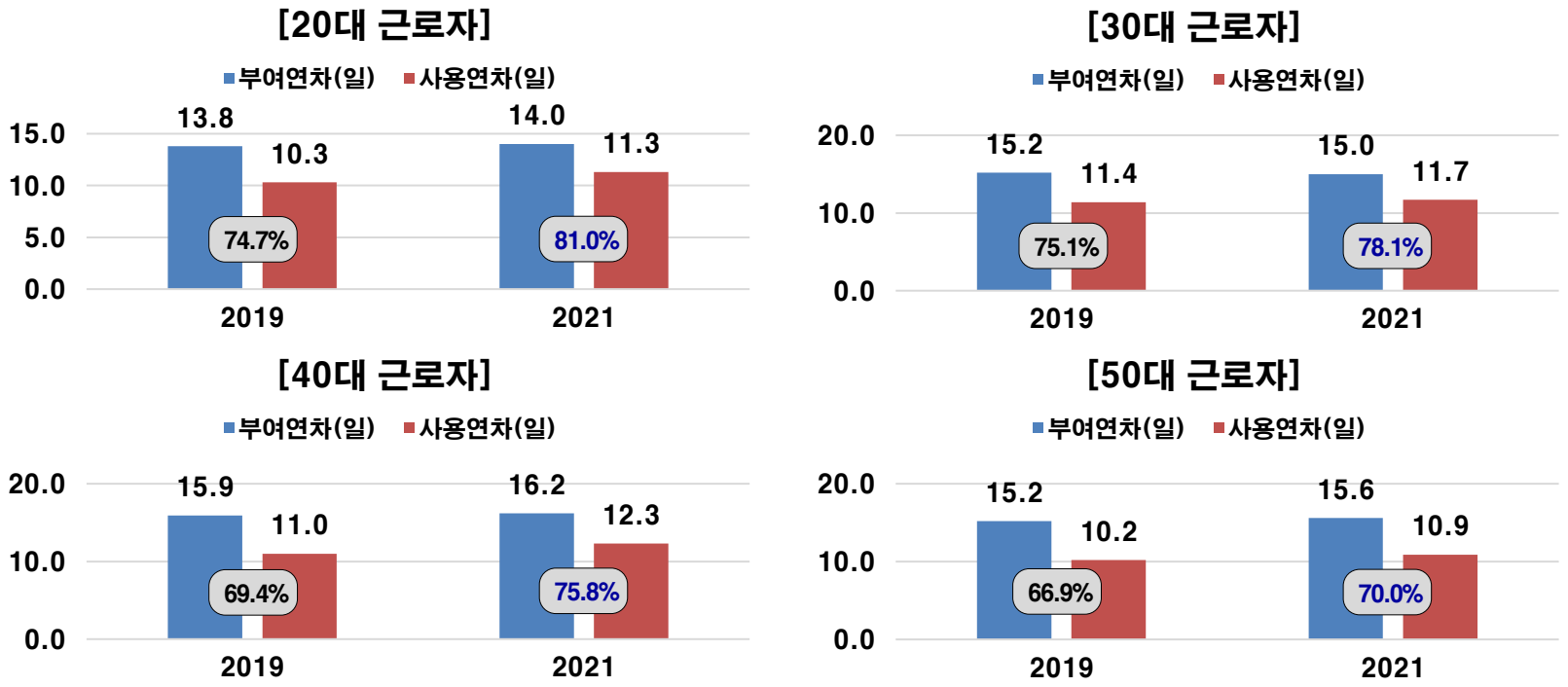
4. 청년의 휴가 사용(1)

□ 연차휴가 소진율은 76.1%('21)이며, 전 연령대에서 소진율 증가

○ 20대(81.0%), 30대(78.1%), 40대(75.8%), 50대(70.0%) 등의 순

<연차휴가 소진율('19 → '21)>

(단위: 일, %)



주 : 회색 칸 안의 수치는 '연차소진율'을 의미

자료 : 문화체육관광부, 2022 근로자 휴가조사, 2022 재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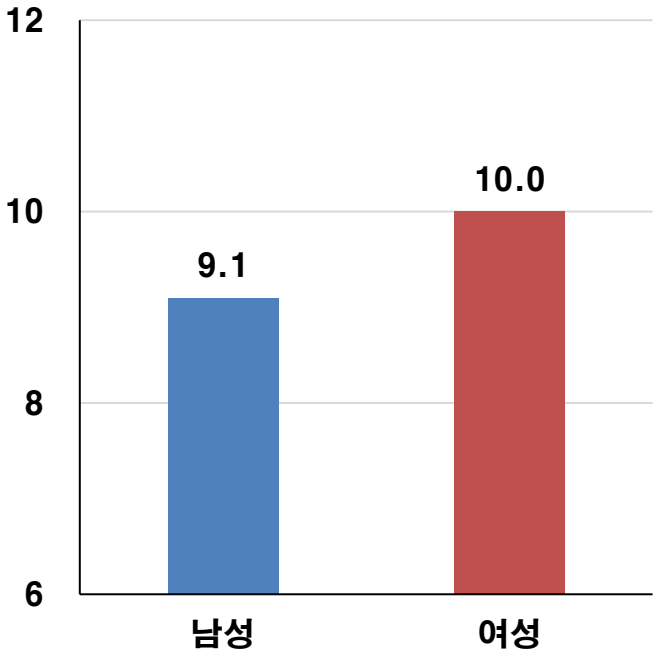
4. 청년의 휴가 사용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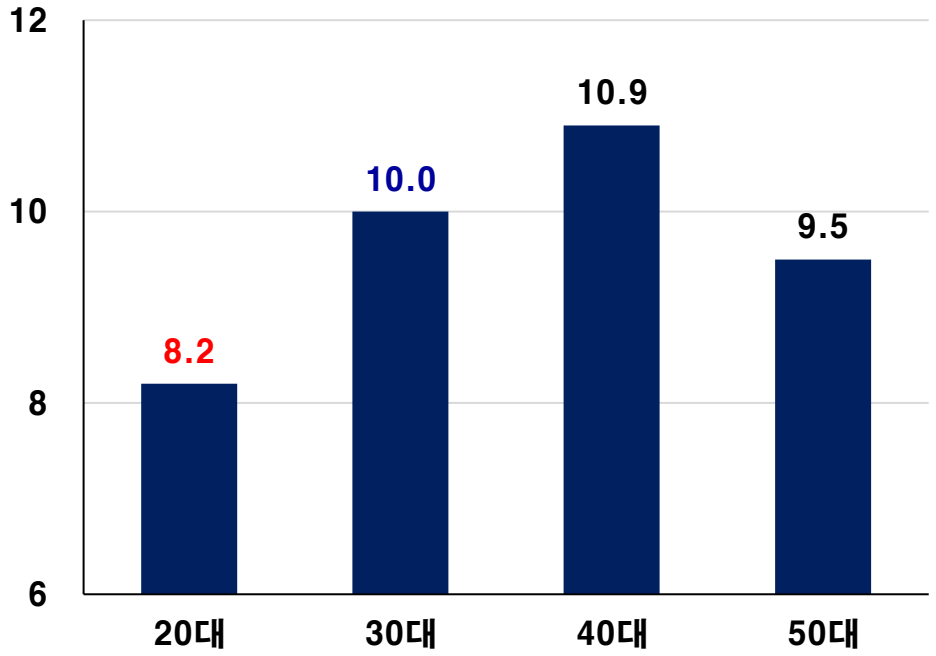
□ 상용 근로자의 9.5%만이 휴일을 제외한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

○ 40대(10.9%), 30대(10.0%), 50대(9.5%), 20대(8.2%) 등의 순

<휴일을 제외한 5일 이상 장기 휴가 사용 경험(2021)>

(단위: %)





주 : 상용근로자 기준

자료 : 문화체육관광부, 2022 근로자 휴가조사, 2022 재가공

4. 청년의 휴가 사용(3)

□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연차수당 수령과 대체인력 부족

○ 29세 이하는 상사의 눈치, 30대는 업무량 과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〈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(2021)〉

(단위: %)

구 분	연차수당 수령	대체인력 부족	함께해야하는 업무특성	업무량 과다	작업 일정상	상사의 눈치	기타
29세 이하	**25.3**	16.4	14.0	12.4	8.4	**10.5**	13.0
30~39세	**22.2**	19.1	14.5	**15.3**	7.4	5.2	16.3
40~49세	19.3	20.3	17.8	15.9	4.7	4.4	17.6
50~59세	19.8	22.1	22.0	6.0	10.3	0.8	19.0
60세 이상	44.8	22.1	10.0	4.0	1.8	-	17.3
전체	22.8	19.5	16.2	12.9	7.1	5.1	16.4

주 : 수치는 반올림함

자료 : 문화체육관광부, 2022 근로자 휴가조사, 2022 재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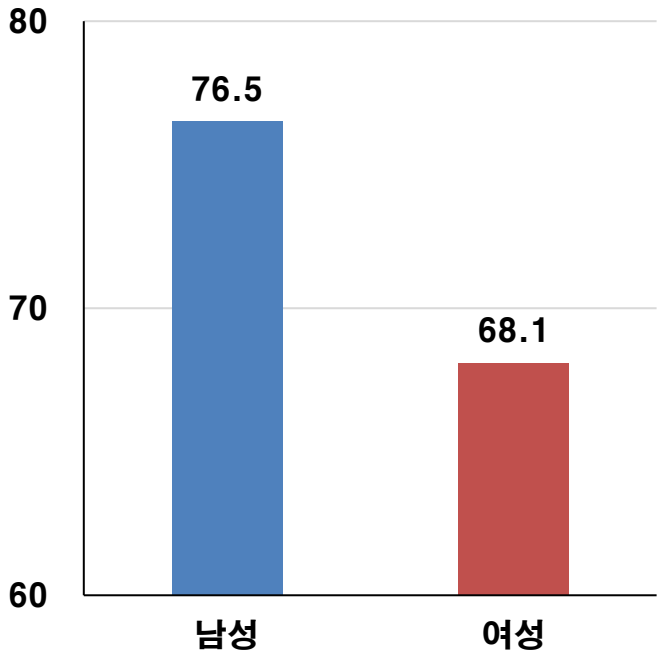
4. 청년의 휴가 사용(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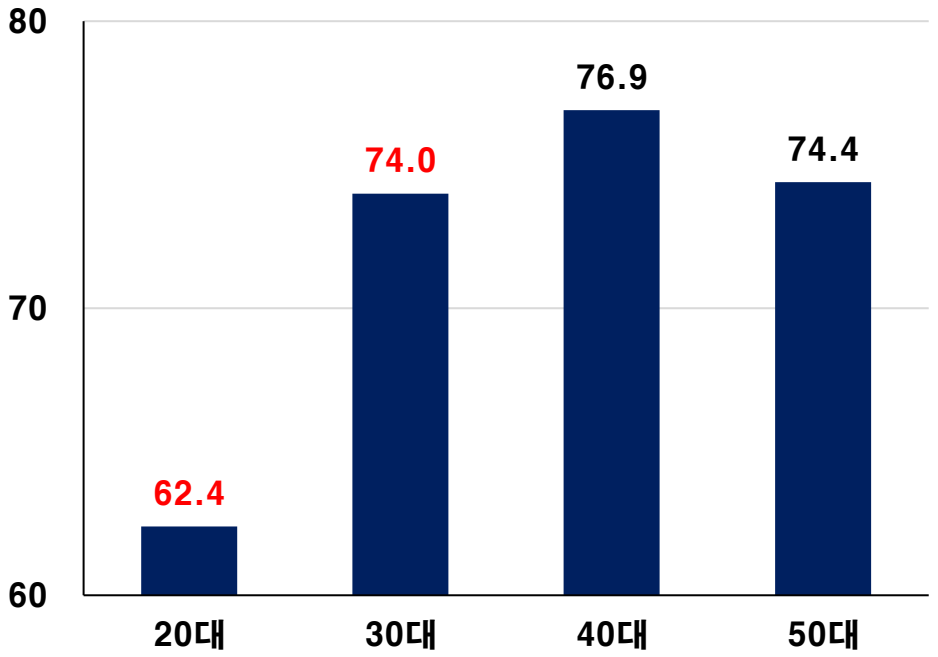
□ 상용 근로자의 72.8%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모두 수령

○ 여성(68.1%)과 20대(62.4%)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
<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모두 수령하는 비중(2021)>

(단위: %)





주 : 상용근로자 기준

자료 : 문화체육관광부, 2022 근로자 휴가조사, 2022 재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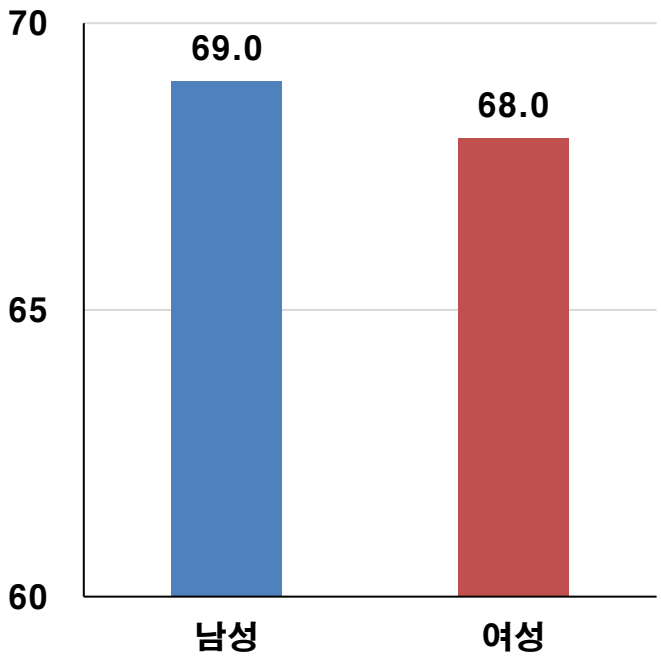
4. 청년의 휴가 사용(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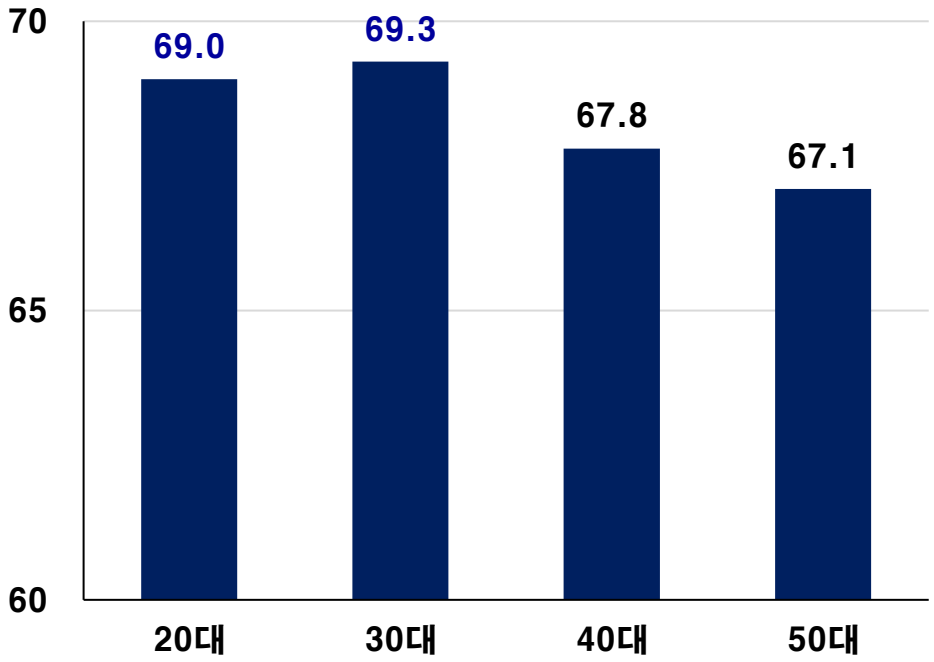
□ 근로자의 전반적 휴가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68.5점에 불과

○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60점대 수준

<휴가 만족도(2021)>

(단위: %)





자료 : 문화체육관광부, 2022 근로자 휴가조사, 2022 재가공

Ⅳ.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방안

(토의사항)

1. 이해관계자 시각(중소기업 CEO)

※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고민(VIEW, 4가지 함정)

Value

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없는데

일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어.

Information

바꾸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.

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?

Effectiveness

올해 이익도 거의 없는데

직원들이 도대체 한 게 뭐야?

Willingness

직원들이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데

이런 고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?

1. 이해관계자 시각(청년 재직자)

※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고민(VIEW, 4가지 항정)

Value

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그대로인데

칼퇴나 시켜주면 좋겠어.

Information

급여 대비 혹사당하는 건 아닐까?

일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.

Effectiveness

휴가 쓰는데 눈치주지 않으면 좋겠어.

잘 쉬어야 성과도 나는 거 아닌가?

Willingness

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드는데

회사가 도무지 바뀔 거 같지 않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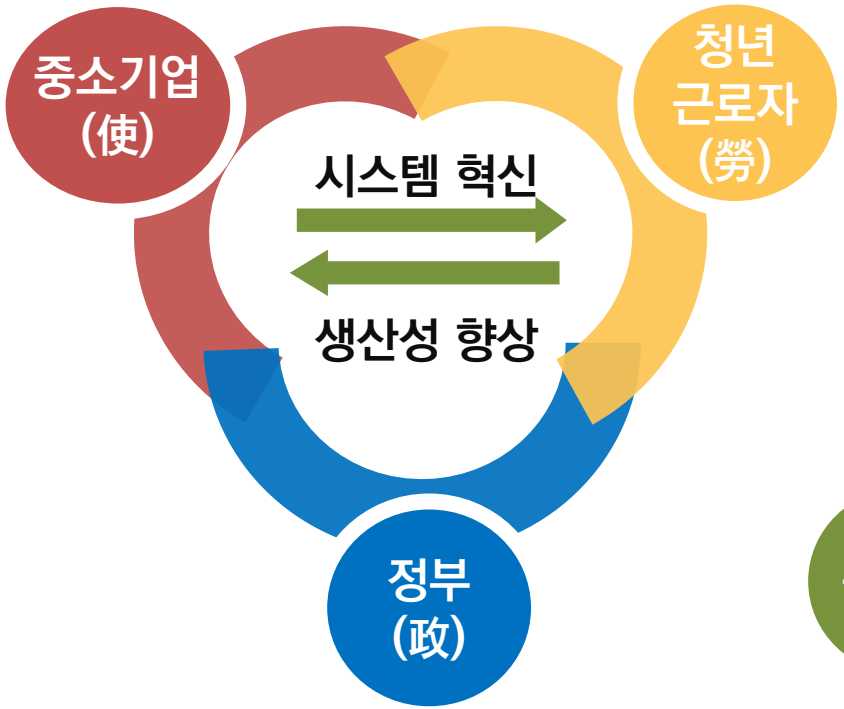
2.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방향

□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노 · 사 · 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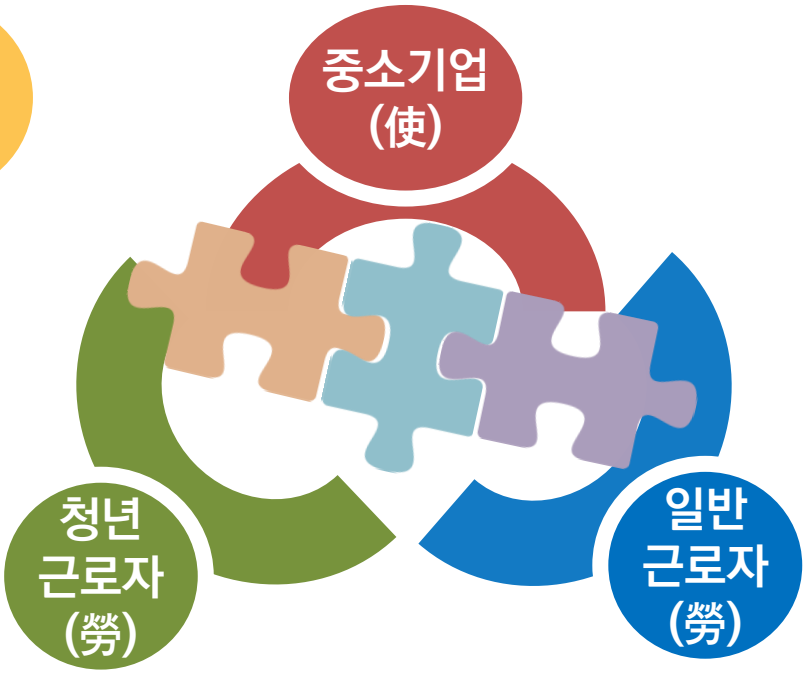
○ 중소기업은 시스템 혁신(보상, 휴가, 조직문화 등),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

○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추진

〈청년 근로자-중소기업-정부〉



〈중소기업-근로자〉



3. 중소기업 근로문화 개선방안(토의사항)

1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-생활 조화(Work-Life Harmon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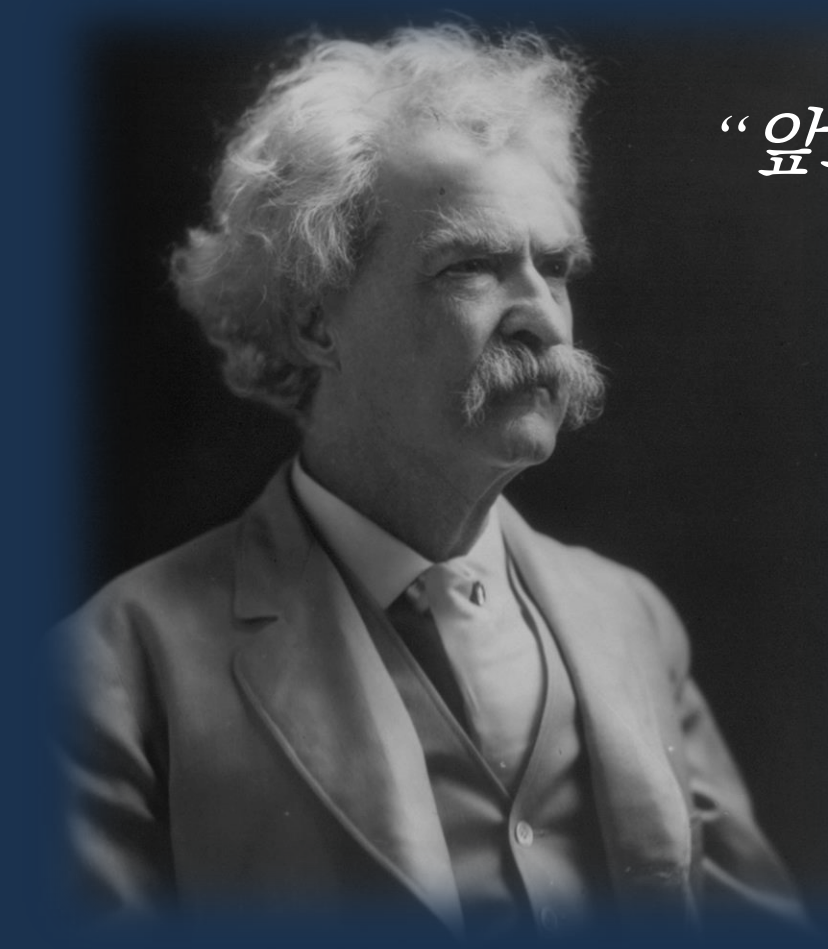
(예) 휴가 사용 활성화, 유연근무제 확산 등

2 중소기업 일터 혁신과 매력적인 직장 만들기(MAGIC Project)

(예) 작업 및 근로환경 개선, 성과보상시스템 활성화 등

3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성장 지원체계 마련

(예) 목돈 마련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확대, (비)학위 연수과정 확대 등



"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

일단 시작하는 것이다"

"The secret of getting ahead

is getting started"

– Mark Twain

감사합니다!

문의
msnoh@kosi.re.kr

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
Korea SMEs & Startups Institute